

2017년 제14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결의문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여 2017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 동안 국회와 국제청소년센터에서 개최된 2017년 제14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 참가한 아동대표들은 '아동의 목소리 대한민국에서 살아 숨 쉬다. -아동의 정책, 아동이 직접 만들어 나가요-'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제안합니다.

1. 아동관련 부처의 아동 관련 팀으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주시고 이 팀이 정기적으로 결의문을 비롯한 아동 관련 정책 이행에 관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웹툰에도 연령등급을 나누고, 그 기준을 정할 때 각 연령등급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들도 등급을 나누는 데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3. 아동과 관련된 형사재판에는 아동도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4. 장애아동들이 장애아동의 복지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장애아동 참여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5. 학교운영위원회에 아동들을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아동들이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6. 학생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전조사와 사전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학기제를 실시할 때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7. 아동 성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성 평등 인식 개선교육을 교사와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주세요.
8.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동권리문제에 대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아동이 아동권리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아동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9. 각 학교에 정부 소관 아동사회참여동아리를 만들어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시고 동아리에서 대한민국아동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결의문을 공영방송을 통해 공개해주세요.
10.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권리 영상제작 공모전을 열어 아동의 참여권을 알리고 수상작은 공익광고로 만들어 홍보해주세요.
11. 선거 연령 하향의 전 단계로서, 아동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정책적 단어와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12.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직업체험분야의 폭을 넓히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체험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세요.
13. 아동진로체험카드와 같은 아동정책 확대를 위해 아동들도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상과 같이 2017년 제14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아동대표는 위의 결의문을 전달하면서 이의 실행을 위한 법률의 개정 및 제정 그리고 예산 지원을 통해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합니다.

2017년 8월 10일

2017년 제14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참가자 일동

2016년 제13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결의문 제안이유

1. 아동관련 부처의 아동 관련 팀으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 주시고 이 팀이 정기적으로 결의문을 비롯한 아동관련 정책 이행에 관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황

- 현재, 정부 부처로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 아동의 삶을 관장하여 각 부처 별로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춰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이렇듯 아동 관련 소관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각 부처별 업무가 중복되어있는 실정이다.

#문제점

- 대한민국아동총회에서 결의문 이행보고 진행 시 관할부서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 보건복지부 관할의 결의문이 아닌 경우 이행보고상황에 대해 정확히 들을 수 없었다.
- 여러 부처 간의 의사소통 채널이나 정보 공유, 법적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의 한계 등이 제도상 명시화 되어 있지 않아 사건 발생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 구성된 TF팀은 2~3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하여 아동이 요청한 안건으로 회의를 실시
- 아동이 안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SNS나 공청회를 통해 안건 요청 시스템을 활성화
- 아동 관련 소관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각 부처별로 아동 관련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대책 안을 수립·시행 한다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웹툰에도 연령등급을 나누고, 그 기준을 정할 때 각 연령등급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들도 등급을 나누는 데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현황

- 웹툰은 2012년 4월 자율규제업무협약 이후 자율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법제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선정성이나 유해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협회에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올해, 웹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정작용을 강화하고자 웹툰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하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칭하는 청소년유해정보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12조 제6항에 따라 매체물의 제작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 중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최종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매체물을 포함합니다.
 - 청소년유해성의 판단은 전문적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성, 영상, 문자정보에 대한 사후심의를 통해 결정(청소년보호법 제7조, 8조) 하고 있습니다.(음성 : 신음소리, 괴성 등의 소리, 영상 : 그림화면, 사진과 같은 정지 화상 및 동영상, 문자 : 단어나 문장)

#문제점

- 현재 만화와 웹툰에 대한 등급 기준은 '청소년 이용불가'와 '전체 이용가'두 단계뿐으로 세분화 되어있지 않다. 즉, 성인용 웹툰은 청소년 유해물로 여겨지는데 스페인 내전의 역사를 다룬 만화같이 교육적 의미를 담은 창작물도 청소년 유해물로 매겨져 모호한 기준에 의해 아동의 배울 권리까지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 성인인증만 하면 볼 수 있는 청소년 이용불가 웹툰을 규제하기에 앞서 아동들이 폭력성, 선정성 등을 담은 창작물에 쉽게 노출되어 아동들의 올바른 신체·정서발달에 문제가 되고 있어 포털이나 검색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웹툰을 강하게 규제해야한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성인이 먼저 시청하여 연령등급을 나눈 후 기준등급 이상의 상위연령 아동이 시청하여 최종적으로 등급을 나누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아동들의 시각으로 등급기준을 세분화 할 수 있고 아동에게 부적절한 콘텐츠 제공을 피할 수 있으며 해당연령에 초점을 맞춘 교육도 가능할 것

이다.

- 웹툰 자율규제를 법제화 한다면 선정성 논란 감소와 아동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아동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는 아동도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황

• 현재, 각 시도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참여인단을 모집하여 청소년참여법정이 개최되고 있다. 청소년참여법정은 심리재판에 관여하는 제도로써 청소년참여인단은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과제를 선정해 판사에게 건의하고 피의자의 과제 이행도를 보고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 재판은 진행하지 않는 식의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문제점

여법정은 심리재판에 관여하는 제도로써 형사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청소년참여법정에 관한 홍보와 정보가 부족하여 관심이 있는 아동이 참여하기 힘든 실태
- 청소년참여인단 모집에 자격요건이 있어 모든 아동이 참여하기 힘든 상태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참여법정은 경미한 사건만을 다뤄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배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
- 아동에 관한 사건에서 배심원이 아동의 눈높이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아동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청소년참여인단의 자격요건을 만16세 이상의 전국 아동으로 변경하고 무작위로 추첨 후 면접을 실시하여 선정한다면 참여 기회가 동등할 것이다.
- 아동과 관련된 모든 재판에서 아동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면 아동이 법의식과 학교폭력예방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을 토대로 진행하며 아동과 성인의 비율을 조절하여 법정에 참석 토록 한다면 성인만이 판단할 수 있는 사건과 아동이 판단 가능한 사건 모두 배심이 가능하다.

4. 장애아동들이 장애아동의 복지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애아동 참여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현황

- 장애인 복지 추진 정책을 위한 과정에서 장애인이 참여하는 기관으로는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피플퍼스트가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 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는 15세이상의 지적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자기표현 발표, 비장애인과 소통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 운동 단체인 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참정권 보장운동, 발달장애인권리보장촉구대회 등 발달장애인의 차별을 해소 하고 권리를 증진하는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문제점

- 위의 장애인 참여기구는 지적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만 하여 신체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구 또한 없어 장애아동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 현재 제안되고 있는 장애아동 복지에 대한 여러 안건들은 비장애인들의 판단으로 만들어진 안건으로 장애인 입장에서 겪은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아동들이 직접 말하고 토론할 수 있는 참여기구가 필요하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기존에 없는 장애아동을 위한 참여기구를 만들어 장애아동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아동 스스로 권리 주체자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 장애아동이 직접적으로 겪는 불편한 요소를 표출할 수 있어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제도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5.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도 포함시키고, 미리 안전을 검토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들로 구성된 안전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현황

- 학생은 어엿한 교육주체이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 중심의 학교에서 학생들은 의견을 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서울교육청은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하여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세부 추진 과제로 마련하였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자치 관련 우선정책 과제로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에 대해 검토하고 토론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학생회가 공약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연간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학생참여 예산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학생회 대표의 학교 운영 참여도 확대되어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의견 개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장하고 학생회와 학교장 간 간담회를 학기당 2번 이상 정례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점

-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가 보장된 학교는 소수이며 아동의 의견이 수렴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아동이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도 교사의 시선으로 묵살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할 제도가 필요하다.
- 학교 내에서 아동들은 자기 결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학교 내에서 학생의 의견이 쉽게 묵살되거나 규정이 바뀌는 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아동과 교사로 이루어진 안전검토위원회를 만들면 아동들의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게 되고 아동이 직접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어 아동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 아동은 학교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토론하면서 건강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6. 학생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전조사와 사전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학기제를 실시할 때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황

-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와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적성과 꿈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써 올해에는 전국의 3천208개 중학교, 약 45만명의 학생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고 1학기에는 319개교, 2학기에는 2천891개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대상 연수를 기존의 중학교 1학년 교원중심에서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700개의 교사 연구회를 지원하고 자유학기활동 평가 매뉴얼과 주제선택 활동 자료집 등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하였다.
-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에 한하여 2개 학기 이상의 자유학기를 실시하는 자유학년제를 도입할 계획

#문제점

- 자유학기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 자유학과 일반학과 연계 등 운영 학기의 제한으로 인한 자유학기제의 도입 취지 약화
- 학업성취도 저하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감
- 학생 선택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사 업무 부담 가중
- 지속적·체계적인 진로·체험처의 부족
- 가장 많은 학생들이 꼽은 자유학기제 문제점은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아동으로 구성된 자유학기제위원회를 조직하여 아동이 원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사전에 조사하여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아동의 적성과 미래를 탐색할 수 있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 아동이 희망했던 직업군을 사전에 실습, 체험해봄으로써 자유학기제 실시 전 희망 직업군 및 진로탐색방향에 대해 재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유학기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사전조사 및 사전실습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전문기관 인증 제도를 도입, 기업·연계 등 자유학기제도의 개선책을 내세워 자유학기제 도입 취지 강화 및 자유학기제 만족도 향상 등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7. 아동 성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성 평등 인식 개선교육을 교사와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주세요.

#현황

- 미국에서는 유치원생 부터 고등학생까지 의무적인 성교육을 진행하고 캐나다에서는 성범죄 및 아이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성에 대한 상식 등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 유럽은 부부가 임신하기 전부터 성에 관련한 부모교육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경우 예비 부부는 부모교육을 받고 부모 자격증까지 받는다.
- 현재 교사는 의무적으로 4시간 이상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성 평등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아동이 성에 대해 본질을 알고 올바른 성 지식을 습득하도록 도와주기에는 부족하다.

#문제점

- 교직원들은 연 4시간 성교육 시스템 이외에도 교육청 주최의 연수에 참여토록 했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남성은 누드에 여성은 무드에 약하다." "남성은 친밀감이나 사랑의 감정 없이도 스킨십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여성은 대화나 분위기 등 감정을 주고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친밀감이 생긴 후 스킨십 욕구가 생긴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성친구 단둘이 집에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친구들과끼리 여행가지 않는다."등 오히려 성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 대부분의 교사 및 학부모는 성을 건강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닌 부끄럽고 숨겨야 하는 폐쇄적인 인식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동 성교육이 특별한 교육이라기보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교사와 학부모에게 성 인식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다면 교내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동이 성에 대해 본질을 알고 성적 위험 예방과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길러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성교육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아이들이 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점을 다루어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 때 반영하여 모든 성관련 문제를 있는 그대로 교육내용으로 도입하여 아동의 성의식 수준에 맞는 교육 재편성이 필요하다.

8.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동권리문제에 대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아동이 아동권리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아동인권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황

- 아동이 권리와 복지에 대해 의견을 게시하는 공간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어린이 게시판 등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가능하다.
- 온라인뿐 아니라 대한민국아동총회, 시도별 아동 정책 참여 프로그램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아동의 정책 참여 프로그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문제점

-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아동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트는 있으나 한정적이고 본인 확인 절차가 복잡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 오프라인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온라인으로는 여전히 전달하기 힘든 상황.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교사와 학부모에게 성 인식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다면 교내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동이 성에 대해 본질을 알고 성적 위험 예방과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길러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성교육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아이들이 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점을 다루어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 때 반영하여 모든 성관련 문제를 있는 그대로 교육내용으로 도입하여 아동의 성의식 수준에 맞는 교육 재편성이 필요하다.
- 점차 PC화면이 도태되어가고 모바일을 자주 접하는 현시대에서 홈페이지보다는 어플리케이션이 접근성이 용이하다. 때문에 아동친화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면 아동이 아동의 정책 참여에 더 쉬워지고 아동 복지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동친화적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더라도 본인 확인 절차를 매번하는 것이 아닌 1회로 끝나야 아동의 자유로운 정책참여가 가능하고 아동의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9. 각 학교에 정부 소관 아동사회참여동아리를 만들어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시고 동아리에서 대한민국아동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결의문을 공영방송을 통해 공개해주세요.

#현황

- 학생 사회참여동아리는 학생들이 교과서 속에서 배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실생활에서 찾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현재, 학생 사회참여동아리는 주로 중·고등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동아리는 극소수이다.

#문제점

- 학생 사회참여동아리는 금전적·시간적 제약에 따라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다.
- 대한민국아동총회를 통해 제안된 결의문의 홍보가 부족하여 결의문에 의한 정책 시행이 늦어진다.
-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저조하며 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참여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아동 사회참여동아리를 정부 소관으로 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저조한 참여율이 개선되고 아동의 역량 신장과 아동권리의 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 아동사회참여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아동에게 대한민국아동총회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아동총회의 발판이 될 수 있다.
-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도 증가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아동총회를 통해 제안된 결의문을 공영방송을 통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10.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권리 영상제작 공모전을 열어 아동의 참여권을 알리고 수상작은 공익광고로 만들어 홍보해주세요

#현황

- 여러 아동 단체들이 아동권리관련 공모전을 개최해왔으나 대부분 1회성으로 그치고 있으며 공익광고로 연계되는 공모전이 2014년 유니세프에서 개최되었으나 이 또한 1회에 그쳤다.
- 아동권리를 주제로 한 공모전을 찾아보기 힘들며 아동권리를 주제로 매년 진행하는공모전은 없다.
- 영상을 분야로 한 공익광고 공모전은 연 1회~2회 정도 진행되고 있다.

#문제점

- 아동권리에 관한 공모전은 비중이 적은 것으로 보아 아동권리의 인식도가 낮다.
- 모바일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요즘 홍보가 중요한 현재, 아동권리에 관한 홍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교내에서 공모전 안내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아동의 참여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길러질 수 있고 아동의 참여권이 보장될 것이다.
- 연1회 아동권리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상작 선정은 투표를 통해 진행하며 수상작은 영상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편집하여 공익광고로 제작·홍보 시 아동권리 홍보 효과가 향상될 것이다.
- 공모전의 개최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모전 참가자들이 아동권리 영상을 필수적으로 시청하도록 한다면 아동 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동 스스로가 권리 당사자로서 정책 반영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1. 선거 연령 하향의 전 단계로서, 아동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정책적 단어와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황

-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학교에서 사회 교과 과목을 통해 사회정책을 배우고 있다.
- 온라인을 통해 사회적 이슈나 정책적 단어를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주는 사이트로는 네이버 어린이백과가 유일하여 교과과정 외에 추가적인 학습을 원하는 아동은 어린이백과를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다.
- 네이버 어린이백과에 정책적 단어나 사회적 이슈만을 모아놓은 카테고리가 없다.

#문제점

- 네이버 어린이백과의 세부분류를 보면 정책에 관련된 분류로 '사회', '시사/논술', '학습용어'로 애매하게 표기되어 있어 정책에 관련된 용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없다.
- 네이버 어린이백과는 국어, 영어, 사회, 한국사, 세계사, 수학, 과학, 예체능, 시사/논술, 학습용어, 문학탐구, 세계탐구, 과학탐구, 인물탐구, 유적/유물탐구, 동물/식물, EBS 어린이 지식e, 천재 학습백과로 자세하게 분류되어 있는 만큼 정책에 관한 단어분류도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 한 번에 찾기가 힘들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아동이 정치가 자신의 일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아동의 정치 지식이 확대될 것이다.
- 아동들의 소신 있는 판단이 가능하여 올바른 선거권 행사에 참여 가능하며 투표권 행사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2.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직업체험분야의 폭을 넓히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체험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세요.

#현황

- 교육부에서는 국가가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처에 대한 인증을 통해 진로체험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체험처의 진로체험 제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현재 '꿈길'사이트에 교육 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현황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 122개, 강원 55개, 경기 182개, 경남 92개, 경북 142개, 광주 21개, 대구 32개, 대전 58개, 부산 100개, 세종 11개, 울산 46개, 인천 33개, 전남 143개, 전북 94개, 제주 19개, 충남 83개, 충북 83개로 총 1,316개의 기관이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되어 있다.
- 직업체험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체험기관의 의지와 성격, 체험처의 환경과 안전 부문에 대해 10개 지표에 따라 심사하고, 부적절한 지표가 있을시 인증을 통과할 수 없다.

#문제점

- '꿈길'사이트에서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의 인증현황은 확인가능하나 진로유형과 체험처의 상세설명이 표기되어있지 않아 진로유형별 현황 및 진로체험처의 성격 파악이 어렵다.
- 진로체험기관은 서울이 122개로 가장 많고 세종이 11개로 가장 적다. 두지역간 진로체험기관수는 약 11배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렇듯 지역에 따라 체험 기회에 제한을 받고 있다.
- 직업체험을 하기 위한 비용부담이 크다. 현재 제주도에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을 받은 직업체험기관은 19개로서 제주도 거주 아동이 원하는 직업체험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하는 상황이다. 진로체험을 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동이 진로체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 처해있다.
- 전국적으로 진로체험기관이 부족하고 조종사나 승무원, 디자이너 등 아동이 원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진로체험기관이 없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다양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직업체험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이 희망하는 진로를 반영하여 진로체험기관을 선정한다면 진로체험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
- 매 학기 기말고사 이후부터 방학기간까지를 아동의 직업체험의 날로 지정하여 이 기간에 아동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지역에 따른 직업체험 참여 기회 편차 감소뿐 아니라 아동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3. 아동진로체험카드와 같은 아동정책 확대를 위해 아동들도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현황

- 아동진로체험카드는 세종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중학교 1학년과 만 13세의 학교 밖 청소년을 상대로 3,100여 명에게 7월부터 연말까지 사용가능하도록 하였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1인당 10만원씩 포인트 적립금을 지급하여 등록된 가맹점에서 진로와 문화체험, 스포츠 관람 등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 성북구에서 올해 중학교 1학년과 만13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9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동행카드'를 지원한다. 연간 10만원의 포인트를 적립한 카드 형태로 발급 하며 서점, 극장, 박물관, 학원 및 교습소 등 문화·예술·체육활동 및 진로체험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가맹점에 대한 신청 접수 및 심사, 등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현재,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혹은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의 진로체험을 위해 진로체험박람회, 진로체험 페스티벌, 진로체험 캠프 등이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다.

#문제점

- 아동의 진로 체험을 위한 아동 진로 체험 카드의 사용가능한 온·오프라인 가맹점은 15곳뿐으로 아동이 진로 체험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성북구에서 발급한 '아동·청소년 동행카드'는 성북구 내에 위치한 서점, 극장, 박물관, 학원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카드 사용처가 한정적이다.
- 아동의 진로체험 탐색을 위해 진로체험 박람회, 페스티벌,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과 지역별 개최에 따라 기회가 균등하지 못하며 무엇보다도 아동이 체험하고자 하는 직업군이 없어 아쉬운 상황이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아동의 진로체험을 위해 발급된 카드가 정작 아동이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아동을 위한 정책 제안 시 그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면 아동의 만족도 향상뿐 아니라 진로 탐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동은 아동 정책의 당사자로서 아동이 목소리를 내었을 때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체계를 구축한다면 아동권리 신장과 아동의 참여권 보장의 초석이 될 것이다.